진리 평화 창조

발행인 최 관 복
편집인 이 상 기
주 간 석 일 균
발행소 한국외국어대학
외대신문사
전화 ☎ 7128 (직통)
우편번호 131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이문동270-1
인쇄인 조선일보사 방 두 영

외대학보

(1958. 3. 27. 제3종우편물 인가)
(등록번호 제다 253호)

제 267 호
<순간>
1978년
9월21일 발행

등록 1960년 7월 1일
창간 1955년 4월 11일

THE OE DAE HAGBO PUBLISHED B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학사일정 일부 변경

중간고사 2일부터 앞당겨 시행

축제 10월 17일~21일

중간고사평가방법 융통성부여

을 2학기 학사일정중 중간고사, 3학년 수학여행및 외문축제등에 관한 기간이 변경 저난 18일 교무처당국에 의해 발표되었다.

먼저 10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2학기 중간고사가 2일표 앞당겨져 10일까지 실시되고, 3학년 수학여행이 11일부터 15일까지, 이어 외문축제가 17일부터 21일까지 각각 변경 실시되게 된다.

중간고사 기간등 2학기 학사일정이 일부 변경된 이유로는 외문축제를 거행할 수 있는 기간의 하락선이 10월 17일 경으로 학생처에서 결정되는데 이기간 이후에는 기후관계등으로 인해 축제행사를 거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이유에서이다. 축제기간이 일단 결정되자 예년에는 자파교로 임의로 실시해 수업, 학사진행등에 차질을 빚어와 논의가 되어왔던 수학여행을 일률적으로 축제기간 전에 실시하여 혼란을 없애도록 배려가 되었다고 한다.

축제, 수학여행등 학생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중간고사를 치러야 하는 입장 변경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중간고사가 앞당겨지게 된 것이라고 교무처 당국자는 말했다.

중간고사가 앞당겨 실시되게 되자 실지로 수업을 받은 일수가 얼마되지 않아 상당히 넘다고 관단해도 좋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법정학술대회

9월26일개최예정

제6회 법정학술토론대회가 오는 9월26일 하오1시 본대학 강당에서 거행될 예정이다.

법정학부 주최로 열리는 이날 학술토론대회는 전의대생들 대상으로 하고있는데 연구범위는 법학, 행정학, 정치외교학및 이와 관련된 사회과학분야로 폭넓게 잡고 있으며 주제는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논문은 200자 원고지 50~70매 분량으로 논문오거 5~10매를 첨부하여 오는 21일까지 법학과에 제출한데 되는데, 입상자에 대해서는 전국대학생 사회과학분야 학술연구 발표대회의 참가자격이 주어진다.

연극공연

「아스타 마니아나」

지난 9월18일, 19일 연극반에서는 앙팔간에 걸쳐 하오 3시 본대학 중앙강에서 <아스타 마니아나>연극 공연을 가졌다.

집행기 기획 신경미 연출로 공연됨. 이번 작품은 신학기 학도호국단에서 벌이고 있는<새마음, 밝은 기풍조성> 캠페인을 위한 공연이었는데 출연자는 유순화(FE, 3) 양의 5명.

도서관 이용 문제있어

휴게실 소음, 열람실흡연, 시설물 훼손

지난 9월초 이전을 끝내고 10월12일경으로 예상되는 신축도서관의 개관식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열람실등이 부분적 개관을 하고 있으나 도서관 열람자들의 도서관을 인및 열람태도가 크게 문제되고 있어 경종을 울리고있다.

현재 1층의 정기간행물실등을 비롯 2, 2층의 자유열람실을 거의 개방하고 있는데 열람실에 바로 접해있는 학생 휴게실의 소음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열람에 방해를 받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이 휴게실에는 새로이 소파, 탁자등이 별 경비된 채로 놓여져 있는데 3층 휴게실에서는 소파 등을 마음대로 끌고다니며 걸터앉아서 창문난간에 발을 올려놓아 난간이 구부 자국으로 변형려진 모습도 볼 수 있다.

게다가 열람실 내에서 흡연을 여전히 하고 있고 책상위에 벌써 낙서자국이 어지러이 새겨 있는가 하면 유리창에 금이가있고 며우기 휴게실에 놓여진 제떨이 주위에는 밟매꽁초가 여기저기 흩어져있다.

도서관장직을 맡고있는 허세욱 (중국어과) 교수는 이런 현상에 대해 현재 본대학 시설이 다소 불량한하나 단독건물로서 들어선 이 도서관시설을 학생 자신들이 아껴야 할 것이라고 권해하고 무엇보다 소음이 없는 도서관이 되어야 할것이라고 장조했다. 또한 「정숙」이라는 표어가 붙을 필요가 없는 도서관을 만들어야 하는데 학생들의 태도가 우려된다고 이야기했다. 특히 휴게실이 소란한데도 불구하고 열람에만 열중하고있는 학생들에겐 고마움마저 느낀다고 얘기하고 있다.

한 도서관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도서관에 들어서서는 일체 흡연을 하지 않고있다고 하여 그러나 흡연을 해도 꺼어도 공초만은 챙겨넣어 버려야 옳지않겠느냐고 하며 청소용원 1명으로 감당할수 없을 정도라고한다.

현재 1, 2층에는 도서관 사무직원들의 출입이 잦기 때문에 휴게실, 로비등이 비교적 조용하나 그렇지못한 3층 휴게실에서는 열람석도 가장 많아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때로 열람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소음이 자주 들려온다고 지적 학생들의 휴식태도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 준다.

이에대해 모파의 K군은 휴게실과 열람실이 완전히 인접해 있어 약간만 이야기를 크게 해도 시끄럽게 들려 도서관 구조상에도 문제점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도서관 분위기의 정착과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자율적 각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직 휴게시설이 불경비되어 있는데 일부 시설들에 대한 낙서 혹은 소음이 우려될 상황이라면 개관이후 완전히 외자 박자등이 들어올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여 도서관 출입자들의 자각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학생회관 휴게실 기물이 설치해 놓은 긴의함>

한불사전 출판기념회

지난 15일 성황리 거행

지난 15일 오후6시 외국어연수원 강당에서 한불사전 출판 기념회가 본대학 최완복 학장과 주한 불란서대사 「고프」씨를 비롯한 불어불문학계 인사등 80여명의 국내외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거쳐졌다.

이날 한불 사전 편찬회의 총무로 있던 본대학 서정철 (프랑스어과) 교수는 경과보고를 통해 1969년 11월 한불 사전 편찬회 (회장 송협) 가 결성된 이래, 정부보조및 불란서 민간보조 또 국내 실업인들의 보조로 총 1,970만원의 자금으로 일단 원고가 작성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1975년부 민간 출판사가 경제성 부족으로 출판을 거부하자, 다소간의 재정의 결손을 감수한 본대학 출판사가 인쇄에 들어가 한불 사전 완성에도달을 모은지 8년만에 지난 7월 총 15만 어휘를 수록한 한불사전이 출간되었다고 국내최초 출간의 어려웠던 과정을 간략하게 보고했다.

「고프」 상원을 비롯하여 이자리에 참석한 이해순 문교부기획 관리실장은 치사를 통해 이 사전의 출간으로 한불 양국간의 문화적 우호 증진에 바른 발전의 계기가 되었다고 치사했다. 또한 주한 불란서대사 「고프」씨는 한·불사전의 출간에대해 한·불사이의 문화적 발전의 큰 기념비라고 격찬했으며 국문학자 이응백박사는 한국의 불문학 연구에 커다란 기여를 할 이 사전의 출간을 환영한다고 치하를 아끼지 않았다.

이어 한국 불어 불문학회 회장 송연 (연세대·불문학) 교수가 문교부 장관등 협조한 관계 인사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본대학 최완복학장은 사전 편찬의 공로자인 한불협 전본대학교수등 관련 공로자에게 감사패를 각각 전달하여 각사의 뜻을 표했다. 이날 회의가 끝난후 이학생활관 강당에서는 간단한 다과회도 열릴어 졌다.

<사진은 지난15일 거행된 한불사전 출판기념회 광경.

정부장학금 전달식 가져

5개학과 15명 총 375만원 전달

지난 13일 오전11시 본관제1회의실에서 78년 제2학기 정부장학금 전달식이 가져졌다.

최완복학장을 비롯한 관계학과 학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져진 정부장학금 전달식에서는 5개학과 15명에게 총3백75만원의 장학증서가 전달되었다.

이 정부장학금은 백학기 프랑스어과등 5개학과에 거달되는데 대통령장학금 (각30만원) 5명, 국무총리장학금 (25만원) 5명, 상공부장관장학금 (20만원) 5명등으로 나눠 지급된다.

이날 장학증서를 전달받은 학생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장학금=이일근 (F·4) 이계선 (G·4) 김정업 (S·4) 이병무 (I·4) 박형석 (A·4)

▲국무총리장학금=오승수 (F·3) 김선산 (G·3) 이옥주 (S·3) 장복희 (I·3) 박승호 (A·3)

▲상공부장관 장학금=최철규 (F·2) 김해진 (G·2) 함기은 (S·2) 유승우 (I·2) 이영태 (A·2)

「시리아 정책연구」

금년말 매듭, 중동연

본 대학 부설 중동 문제 연구소 (소장 유정렬교수) 에서는 7월에 자체 연구능문 집인 「수단의 내외정책에 관한 연구」를 발간한데 이어 5월부터 시작한 「시리아의 정치, 경제, 외교, 사회에 관한 연구」를 올해 말경 매듭지어 연구 논문집 제4집을 발간한 예정이다.

타자 강습

여학생 교양함양위해

본 대학 학도호국단 여학생부에서는 전 (全) 의대인회 교양함양을 위해 타자강습을 실시하기로 했다.

타자강습기간은 9월19일부터 28일까지 (토, 일요일과 중간고사기간은 제외) 한달간이며, 강습은 오전 8시~8시50분, 오후 5시~6시등 두시례에 걸쳐 실시하는데 수강료는 2000원 (교재비 별도) 이라 한다. 참가신청은 학도호국단 여학생부 (4304호) 로 하면 된다.

「소련정책연구」착수

동구문제 연구소

본 대학 부설 소련및 동구문제연구소 (소장 : 조규희부교수) 에서는 문교부 오형에 의해 「소련의 제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를 진행중이다.

경부부도의 공산권연구가 대학중심으로 전폭되는 것보에 가 필 이번 연구에는 본대학의 김 벽 (정외과) 한발한 (정외과) 교수 외에도 김학수 (고려·노문학) 교수 등이 참가하며 소련의 제정책에대해 정치, 경제, 문화적측면을 중심으로한 연구, 이데올로기의 경향성과 변화, 대미, 중공관계등이 주요 연구내용이 될것이다.

이와함께 금년말 연구가 종료됨에 따라 연구보고서가 책자로 엮어져 나올 예정이다.

공인회계사 2명합격

김기혁(T·77졸), 김문규(E·c·78졸)군

지난 8월 실시된 제12회 공인회계사 제2차 시험합격자 발표가 지난 14일 총무처에서 있었는데 본대학에서 김기혁 (무역학과·77년졸업) 동문과 김문규 (경제학과·78년졸업) 동문등 2명이 합격됐다.

상경계통의 국가고등고시성격을 띠고 있는 이 공인회계사시험은 올해 약 약1200여명이 응시 총 73명의 합격자가 선발되었는데 본대학에서는73년 3명이 합격한이후 수 (고려·노문학) 교수 등이 참가하며 소련의 제정책에대해 정치, 경제, 문화적측면을 중심으로한 연구, 이데올로기의 경향성과 변화, 대미, 중공관계등이 주요 연구내용이 될것이다.

이와함께 금년말 연구가 종료됨에 따라 연구보고서가 책자로 엮어져 나올 예정이다.

모의 월드컵대회 창설

신입생 환영체육대회의 폐지와 함께 종래의 모의 올림픽이 1학기에 개최됨에 따라 2학기 체육행사의 보완을 위해 모의 월드컵대회가 창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도호국단 체육부의 관관계자에 따르면 축구부문에 한해 마련되는 이 행사의 대개의 일정은 중간고사 이전에 예선을 끝내고 축제기간중에 준준결승이루어낸선을, 그리고 10월20일경에 결승전을 갖게될 것이라 한다.

교련 면제자 신청

학생처

78학년도 제2학기 교련 면제자 선별 신체검사를 수검하고자하는 교련 수강 대상자로서 신체적 지장으로 도저히 수강이 불가능한 자는 진단서 1매신청서 1매를 학생처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접수는 9월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이다.

심자가지는 자세

○…2학기들어 캠퍼스안에 두장의 낭보 (朗報)(?) 가 전보다 면저의 척계 펄럭은다는데, 머릴 전 모 파에서는 교수님의 입실이 늦어지자 급기야 과장머리의 분위기로 바뀌려는 조짐이 됐다.

물론 한 휴산조비장의 명제일 잡, 「동독금과 유장간의 피파고 바스케 이때」를 발표, 한때 고의실내를 숙연케 하여 15분 내기다렸더니 마침내 교수님의 입실로 강의가 시작 퍼졌다는 효 못하고 풍를한 (?) 일화.

그 들든 국면에, 공부하겠다고 심자가 (?) 를 지는 자세야 아무리 퍼를이해도 지나치지 않을 진을 (眞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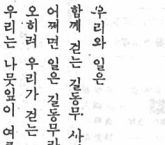
○…지난 18일 오후의 한가한 틈을 타 크로니를자 교정을 배회하던 중.

<새마을 밝은기풍 운동(云云)> 하는 그럴듯한 연극공연 광고에 눈이 번쩍 뜨였는데.

그야말로 「새마을」을 가다듬은 본 크로니를자 공연장에 들어서니 필빈 장방면 주최자만이 고독하게 (?. 자리를 몇 몇 군산조는 눈치만 힐끗힐끗 보고는 스르르 퇴장.

게다가 20분이나 놓게 시작한 연극인데 때아닌 「여성의례」가 등장하는가 하면 출연자의 연기는 밥 쉬크가 도저히 어색해 보여 곳곳이 자리를 지켜 관람을 마친 크로니를자 씁지 않을는 노 짐.

「이런지 갖자기 마련한 연극공 고가 수상되라 됐더니」 그렇게려 슬해서야 어디 새마을 다잡겠소.



○…#1 「저어, ××과 과장실이 어디에요?」

「글쎄요. 그땅이디로올것데타?」

#2 「제기요. 말씀 좀 물겠는데요. 학생처가 어느 쪽으로 갈어요?」

「아 제기 제쪽 3교사쪽이요」

「3교사가 어딘데요?」

「……」

이상은 한 좀 삼조차 본대학을 찾은 외부인사의 대화를 도청 (盜聽) 한 내용의일부.

새학기와 더불어 이 탄광공사가일 외부인장자 속이 낡은 꼭 꼬는 확실히 법개최 문제인 요양. 다행히 대원사람이 없어졌만다 일이었지만 이기회에 학내에 낡고 허술한 곳을 찾아보아 「정불안」이란 내실에도 유의해야할듯.

새마을 다잡겠소……

이문촛점

모든 세상일이 그러하듯이 학내의 제반 문제도 대학 구성원 각자의 상호 대화를 통한 해결이 되어져야 한다.

어느 한편만의 사고는 한계를 이 필수 없기 때문에 대학인 모두가 한계를 만드는데 능동적인 주체자가 되어야겠다.

건의함은 설치만 해놓음으로써 공냥 수는 없는 일이다. 건의함 속이 텅 비어있다는가 한 주개의 건의사항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가 하는 상황에 대한 책임을 「건의함」 자체가 질 수 없는 일이지실다.

재정지원 뜻비쳐

외무부서 본 대학연구소에

외무부 외교안보 연구원(원장·장형준 전본대학 대학원장) 에서는 지난18일 본 대학의 각 연구소에서 필요로하는 연구는문집 발간에 대해 재정적인 지원을 해줄 의향을 밝혔다.

연구소 측의회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학교 재단에만의존했던 각 연구소의 연구비가 정부로 부터도 지원을 받게됐군」 (지원자 발의면서)「이에 따라 각 연구소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 질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본대학 연구소에서는 문교부나 산학 협동재단에서만 지원을 받아 왔었다.

구호모집

외대이념 구현위한것

학도호국단에서는 외대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진리, 평화, 창조의 이념을 구현할수 있는 구호를 지난 15일부터 26일까지 현상모집하고있다.

외대의 얼이 담긴 응원구호로서의 성격을 띤 창작품이면 어떤 형식이든 응모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선작 1편과 가작 1편에 각각 2만원 및 1만원의 상금이 주어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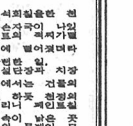
사 령

수습기자
조영복 (E·1)
배기섭 (G·1)
정길룡 (S·1)
김철방 (K·1)
곽해선 (J·1)
한 욱 (법경·1)
신선희 (문K·1)

임 명 기자
김정민 (G·2)

4년말장기자
원에 따라 사임
이상 9월21일자

외대 신문사



▲2학기 학사일정 제반사정으로 일부 변경
—오로 가도 사을만 가면…
▲도서관 이용상태 불량하다고
—시설이 완비되니 이런 「떠나」의 부재

일

우리와 일은
함께 걷는 길동무. 사이다
어쩌면 일은 길동무라기 보다
오히려 우리가 걷는 길 자체다.
우리는 나뭇잎이 여름햇볕에 빛나듯이
더 깊을 걷는다.
우리위와 먼지 속에서
우리는 땀을 흘리지마는
우리가 성공적으로 만드는 제품 낱낱
우리가 사고없이 끝내는
공정 하나하나는 돌판 위를 본는
바람처럼 우리를 시원하게 해준다.

우리는 너무 오래 쉰 사람처럼
그래서 최스럽고 가난을 느낀다.
우리는 본래 걸어 갈 길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을 만들면서
동시에 그 길을 걷는다.
후손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 애들에게 할 이야기는
많고도 자랑스럽다.
그 애들도 또 새길을 닦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처럼은 많이 닦지 않아도 될 것이다.
우리가 더 많은 길을 닦으면
그 애들은 더 많은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동료들의 얼굴을
일하는 틈틈이 바라본다.
그들의 얼굴은 지쳐 있으면서도
더 깊은데서는 희망이 넘친다.
서로의 피로를 바라봄으로써 위로한다.
우리는 이 희망을 서로 주고 받으며
과연 우리한테 무엇이 소중한가.
우리는 다 그 답을 알고 있다.
길도, 길을 걷는 것도, 우리의 후손도
우리들의 동료만큼은 소중하지 않다.
우리 동료의 아픔을 서로 모르고
우리 동료의 희망을 서로 모른다면
우리의 일 우리의 길은 아무데도
갈 곳이 없는 허무한 것이기 때문에……

國際商事그룹

國際商事株式會社 ICC CORPORATION
聯合鎔鋼工業株式會社
東西證券株式會社
國際紡織株式會社
三洋鋼平株式會社
東海投資金融株式會社
國際商船株式會社
國際綜合建設(株)
聯合物産株式會社
國際綜合機械工業(株)
朝光貿易株式會社
國進企業株式會社
豊國化學株式會社
新東製紙工業株式會社
國際金屬株式會社
東宇産業株式會社
國際通運株式會社
成昌纖維株式會社
國際土建株式會社
國際綜合技術開發(株)

외대문화 형성의 선언(宣言)적 효과를 위한 시론(試論)

「외대문화 없다」는 전제… 자기비하 문화반침 유약, 건강문화 발전의 장애

선언효과로의 외대문화 논란, 의의 지녀

「외대문화는 부재 (不在) 증인가?」의 대안 조치도 당년할 수 없는 모호한개념의 문제다. 그렇다할 상징을 소유하지 못한데도 한 원인이 있겠으나 그보다는 외대문화에 접근할 수 있는 계기적 고찰에 동한시해왔던 것이 더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외대문화는 가능한가?」의 질문이 현단계에서는 더욱 절실함을 안겨준다. 김남일 (N·2) 군은 이 문제에 대해 냉정한 분석으로 본대학 문화를 시론 (試論) 하면서 반론 (反論) 을 기다리고 있다. <편집자주>

김 남 일

—대학문화란 결국 사회여러집단의 본질적으로 문화체형에 앞서는 성질을 갖는다고 볼수 있다. 다시말하면 대학문화는 본질적으로 문화체형에 어나지않는 범위내에서 가능한한 외향성 (外向性) 원심력을 소유함을 커다란 특징의 하나로 갖고있다.

외대문화는 가능한가? 이러한 질문은 결국 외대문화는 가능하며, 그 존재의 바당성을 인증하려는 노력에서 하나의 반론명제로제기되는 자기비하명제의 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아무튼 외대문화란 가능한것인가라는 지극히 추상적인 질문이 요구하는 해답에 연근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반적인 대학문화의 개념을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해나하면 외대문화란 대학문화의 한 종개념 (種概念) 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물론 외대문화의 특수성을 고찰하고 기타 제 (諸) 타대학문화와 구별되는 특징을 파악한다하더라도, 대학문화의 한 원소로서의 외대문화라는 개념의 정립에는 하등의 변화가 있을수 없다. 이는 현의 (旋識) 의 개념으로 대학문화를 살펴 대학문화의 기성문화에 대한 반문화적 성격을 중요시한다하더라도, 외연적으로는 부분문화적 성격을 띠게 되는 부작용 수밖에 없는것과 마찬가지 이유다.

그럼 대학문화란 무엇인가? 다시 동어반복 (同語反復) 에 빠지는 감이 없지 않으나, 대학문화란 보다큰 일반적 사회문화의 한 원소 개념임을 또한 부인하지 못한다. 일반적인 문화를 상위문화라 볼 때, 그러므로 대학문화는 상위의 하위문화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러한 하위문화인 대학문화가 실제로는 결코 하위문화가 아니라는 점이다.

집합 (集合) 개념으로 볼때는 물론 하위문화인 것만은 틀림없지만, 문화의위계질서를 띠나 그것이 다른 하위문화들을 선도해나가는 사실을 살펴볼때 이러한 정의에 반박하기 않을수 없는 것이다.

대학문화란 결국 사회의 여러 집단의 문화명에 앞서는 성질을 갖는다고 볼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대학문화는 본질적으로 문화체도를 벗어나지않는 범위내에서 가능한한의 외향성 (外向性) 원심력을 소유함을 커다란 특징의 하나로 갖고있다. 대학의 본질이부엇이냐는것에 스페인의 유명한 철학자 오르테가·이·가세트 (Ortega y Gasset, Jose) 가 말한바대로 대학은 현실에 개입을 해야의 갖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대학의 본질을지키면서 행해져야한다. 그러나 그것은 선언적 효과를 노린 의도적 노력이라고 볼이할수 있을 것이다. 외대문화가 어제면 지금도 형성되어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형성주체이며 곧 발전주체인 우리 외대인들이 그렇게 확실히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시인한다면 외대문화가 현연히 존재한다는 선언적 효과로서의 외대문화에 대한 논의의 시작일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제까지 외대문화가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는것을 전제해 가정하에서 논지를 전개해온 셈인데, 일견한 의미에서 볼때 이러한 식의 논리가 반드시 바람하다고는 할수 없다.

해나하면 일반적으로 문화가 할때 그것이 어느 특정한 시점에서 형성되고 발전되다가 붕괴한 한 시기에 소멸된다고 볼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차라리 문화란 여러 요인들의 우연한 결합에 의해서무 (無) 의지적으로 자연발생 성장 또는 쇠퇴를 한다는 견해가 훨씬 바당성을 지닌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논리적 비약을 감수하고서까지 이런 식의 가정을 전제로하고 출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러이러 그 이유를 무고있는 것일까?

이러한 논의이 외대문화의 정립을 위한 한 방법일을 전제로 외대문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제까지 외대문화가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는것을 전제해 가정하에서 논지를 전개해온 셈인데, 일견한 의미에서 볼때 이러한 식의 논리가 반드시 바당하다고는 할수 없다.

해나하면 일반적으로 문화가 할때 그것이 어느 특정한 시점에서 형성되고 발전되다가 붕괴한 한 시기에 소멸된다고 볼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차라리 문화란 여러 요인들의 우연한 결합에 의해서무 (無) 의지적으로 자연발생 성장 또는 쇠퇴를 한다는 견해가 훨씬 바당성을 지닌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논리적 비약을 감수하고서까지 이런 식의 가정을 전제로하고 출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러이러 그 이유를 무고있는 것일까?

이러한 논의의 선언적 효과가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외대문화를 발전시켜야 하는가?

외대문화론의 결론일 수도 있는 이러한 결론에 답하기 전에 우리는 외대인 전체의 외대문화에 대한 의식과 작업이 선행되어야함을 인식해야 한다. 확고한 의식의 기반없이 외대문화를 전개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일뿐만 아니라, 설사 그것이 가능하다하더라 도 그 발원의 유약 (柔弱) 함 때문에 건강한 문화로서 발전되기는 심히 어려울 것이다. 방법론은 이러한 정지 (靜地) 작업이 이루어진 후에 논의되어도 충분하리라 생각한다. 아무튼 대학문화는 그 대학을 둘러싸고있는 사회의 문화와 동질이면서도 같은 파장에 머물러 있을 필요는 없는 것이라는 평론가 김 종무의 주장대로 일단 대학문화의 범주 안에서 외대문화는 기존사회문화와는 그 차원을 달리 해야함이 필요하며 그 다음에 외대의 특수성을 바탕으로하는 외대문화를 다른 대학의 문화에 비해 우월하게 형성해야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 작업은 결코 외대의 특수성이 외국어로 집약된다는 사고방식에서 외국문화를 소개 내지는 모방·추수의 선에서 출나서는 안된다. 외국어란 그 자체 모방성을 지니고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외대의 문화란 「Quasi」 즉 준문화 (準文化) 내지는 의사문화로 변질될 위험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외대의 문화가 그런 식으로 도도 (盜道) 된다면 외대는 외 (外) 대 (大) 일뿐만 아니라 외국문화를 받아들이는 포장의 구실 이상이 아니라는 결과으로보기지 소외될 입장 (外) 대 (台) 가 존재한 처에야 가능함을 생각하면 「합국 외국어대학」의 「외국어」 이 에 30%의 비중을 두는 데신 「한국」 에는 적어도 50%의 비중을 두어야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일수 있을 것이다. 너무 추상적인 논지 (論旨) 를 펼쳐왔으나, 풍랭한 비판이 쏟아져들어 올 것을 기대하는 마음에서 시론 (試論) 에 불과한 이 글을 여기에서 맺는다.

<네덜란트어과·2>

사설

우리의 연구과제

국내선거, 대(對)강대국외교에 관련에서

바야흐로 가을이 왔다. 하늘은 맑고 드높다. 즐기도 입지도 않은 쾌적한 날씨에 오곡은 무르 익으니 가히 상쾌한 기분이 솟아나 갔는다. 가을은 (秋) 의 계절, 결실 (結實) 의 계절, 전교마비 (天高馬肥) 의 계절이라는 표현이 「저금」을 적확히 설명해주고 있다. 이에 더하여 등화가진 (燈火可親) 의 계절이라는 선현들의 표현은 우리에게 계절속의 낭리성 (當爲性) 을 알려주는 귀중한 명제 (命題) 로 나 타나고있다.

그중한 학교에에는 가을을 맞이하는 법력이 있었다. 옛도서관은 학생회관으로 바뀌었고 신축도서관이 최신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 개관되었다. 넓은 공간, 아담한 장서, 조용한 분위기는 등화가진의 계절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외로는 선거의 계절이 왔다. 오사이 방공전문제가 신문지상을 떠들석하게 장식하고 있다. 유권자들간에는 투덕을 보고 한표를 던질 것인가로 짜재가 붓부하다. 선거를 전공하는 학자들은 투표요인으로 정당, 인수, 인물, 지연, 혈연, 돈봉을 놓고 어느 요인이 가장 중요한 가를 따지고 있다. 복리 정책의 실수중에 어느 것을 택하는 지세가 더욱 정치발전적인 자세인가에 대하여 논란이 분분하다. 지식인이라면 한번쯤 연구해볼 만한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분명히 지금 국내외으로는 동태적 (動態的) 정치과정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정세역시 전장기 어려운 입법하는 동태적 역학관계 (力學關係) 를 보여주고 있다. 오늘의 적 (敵) 이 내일의 친구로, 혹은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으로, 라는 평범한 논리가 국제정치에 현실화 되는 순간 이들 지식인들은 중지을 받는다. 미루어 오면 일·중평화조약체결은 순식간에 이루어 졌다. 미·중관계 역시 준군사장비 거래관계를 가질만큼 진전되었다. 복리가 중·소사이를 교묘히 왕래하면서 등거리외교를 추구하면 자세를 바꾸어 중공쪽으로 접근하고 있는 인상을 짙게 풍기고 있다. 동시에 미국에 대한 입요한 주파를 입증없이 연거고 있다. 결국 눈에 쳐게 나타나는 것은 소련을 견제하기 위한 중공과 북국적 외교정세 (단 한국은 제외) 와 이에 편승하여 자신의 실리를 찾으려 한지람을 다하는 복리의 자세에서 찾아 볼수있다.

위에 대응하는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도 적극성이엿보인다. 무엇보다도 소련과의 기존체제관계를 최소한도로 완화시켜 보자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중공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언제나 대화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함을 보여 주고있다. 대미우호관계도 계속 강화하면서 비동맹국들과의 관계개선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복리와의 외교관에서 누가 누구를 먼저 고립시키느냐의 지엽한 경쟁을 벌이고 있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전체의 연구과제이며, 앞으로의 생존과 번영에 직결된 문제라고 볼수있다.

과연 연구해야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작게는 내일 내일의 막급과정을 절적하게 이해하는데서 부터 크게는 세계속의 우리의 위치를 파악함과 지식속에 발전지향적 인간상을 심고 기우는 일에 이르기 까지 무수한 연구과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아직 새 도서관에 익숙하지 못해서인지 열람실에 빈자리가 많고 방10시까지 앉아서 공부하는 학생수는 적다. 등화가진의 계절이 아니라 학생들 의 의지와 사고면에 있어서도 알찬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외국어 모방… 준(準)문화·의사문화로 변질위험 내포

서울의 「건강」 회복 되어야

—현대판 인구 이동—

시론

한국의 현시대를 이야기할 때 흔히 「역사의 단죄」 이란 표현을 빈다다. 구미 (歐美) 의 어러나라들이 수세기에 걸쳐 경험한 인위적 문명을, 우리사회는 반세대라는 짧은 기간에 압축시켜 밟도있게 수용했다는 뜻일것이다.

우리 한국 사회가 체험한 거대한 변화의 주체나 그것의 정도를 세밀하게 가늠할모책은 뿣기힘들다. 그러나 자랑수가 높아가는 통계숫자를 볼때, 특각 변화의 속도나 규모를 알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인구의 도시집중화. 그로 인한 도시중심형 산업구조, 복리 서울의 비대화 현상일 것이다.

서울의 비만증에 대한 우려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남한 전체 면적의 0·7% 남짓한 넓이에 전 인구의 20여%가 밀집되어 있다든가, 최고학부의 반이상이 집중되어 있고, 자동차의 반수이상이 서울거리를 누빈다는 등의 풍계는 이미 우리들에게 통계이상의, 경고의 의미를 피력기게 하고도 남음이다.

서울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도시문제」를 해결하려는 조짐들이 행정당국에 의해 연일의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새로운 행정수도의 건설시안이 발표되었고 행정관서의 지방이전, 교육기관의 지방분산등은 서울이 「메이상」 비대화하는 것을 막으려는 노력일 것이다. 그러나 서울은 현상태에서도 그 거대한 덩어리가 절서에 의해 움직이기 어려우리만큼 하루 1천만이 넘는 교통인구, 40%이상의 가구가 셋방살이를 하는 주택문제등 비대화의 징지와 아울러 현실적으로 정비보완해야 할 문제를 많이 안고있다.

서울거리를 지나다 보면 시야가 번쩍 보상비를 들려싸고 심심찮은 마찰이 일어난다. 주로 현시가 (現時價) 와 감정원 고시가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복지를위한 공공사업이 도리어 「민폐」의 형태로 받아들여지게 되어서는 안될일일것이다.

> 도로확장은 기존시설, 즉 건물, 주택등의 철거가선행되어야한다는데 문제가 심각하다. 거기에 따른 보상비를 들려싸고 심심찮은 마찰이 일어난다. 주로 현시가(現時價)와 감정원 고시가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복지를위한 공공사업이 도리어 「민폐」의 형태로 받아들여지게 되어서는 안될일일것이다.

가 바람들도 없이 도로확장 공사가 이루어지는 복잡한 현장을 항상 대하게 된다. 도로율이 15%도 채 안되는 상태에서 오늘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묘책은 도로율을 높이는 길밖에 없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일전에 시정 (市政) 의 고위당국자는 「서울의 도로율을 1% 높이는데 서울시 예산의 3분의 1이 소요된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그런데 도로확장은 기존 시설 즉 건물, 주택등의 철거를 전제해야 한다는데 문제가심각하다. 거기에 따른 보상비를 들려싸고 심심찮은 마찰이 일어난다. 주로 현시가 (現時價) 와 감정원 고시가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복지를 위한 공공사업이 도리어 「민폐」의 형태로 받아들여지게 되어서는 안될일일것이다.

여초에 자연발생적 도시로 출발한 서울이 최근에 급속한 산업화로 말미암아 과밀폐으로 「문명의 치장」에 치우쳤기 때문에 과생되는 문제점에는 틀림이 없다.

머릿전 주식력 서울을 빠져나간 귀성인파가 줄잡아 1백50만명이라는 말표가 있었다. 그야말로 「주중」의 단계를 넘어선 집시적 「인구이동」이다. 유형의 역사를 바꾸어 놓은 개표만민족의 이동이나 「유린병」들의 신대륙이주등을 연상케한 「인구이동」이 한 귀퉈, 서울을 둘러싸고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귀성제의 풍수속에서도 실감하게 되었다는 말도 전혀 과장저럼 들리지 않는다.

조직의 생명은 질서이다. 조직이 커지면 커질수록 조직의 질서화는 어려워진다. 또한 방대한 조직에서 질서가 흐트러질 때 그 사회는 혼돈 (disorder) 이라는 시련을 겪어야 하는 것이다.

서울이라는 거대한 「덩어리」는 일전상으로도, 많은 위험요소를 안은 채 굴러가고 있다. 현실상의 문제는 서울의 지리적 여건에서 상겨나 근본문제이기에 「도시계」 사회에서 다룰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국가의 생존과 결부되는 보다 심각하고 본질적 문제이다. 본고에서는 일단 논의를 하고 다음 장으로 미루기로 한다.

서울의 비대화를 막으려는 일련의 정책들은 더 이상의 방임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 과학적이고도 현실적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에서도 교통문제, 주택문제, 공해문제 등 긴급한 절서화에 위해한요소들이 산재해 있다. 인생에 폐단을 끼치지 않는 신중한 정책으로 비만증에 시달리는 서울을 「건강」을 근본적으로 회복시켜야한다.

이것은 한민족 가릴것 없는 모든 시민의 소망이다.

미니 칼바

▲요즘에는 사랑을 다짐받은 기반이 퍼이나 공허 (空虛) 한듯 싶다. 이성간의 연애나 어린 시절의 알알한한 첫사랑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술자석에라도 가볼양이면 대개 「지이드」의 종은문으로 할한 사랑의 말씀을 자랑하는 넋두리로 시간을 보낼다. 가슴에 와닿는 「느낌감」의 단절과 부재 (不在) 를 자조 (自嘲) 하는 서글픈 모습들이다.

▲요즘이모시한 사랑의 가치관을 저만치 잣세에 놓아놓는 써리에 황금만능의 쏟과 한모습 한다 「값을 매기」 였던 부부간의 다툼이 「값을 돈매기」로 바뀌는 작금의 메마른 세태에 우리는 사랑으로 메꾸 볼수 없는 속물의 비정을 본다.

그것은 그입다하더라도, 전청 (天廳) 의 주름 앞소에 앉고 있지는 사람은 하지않는 대학생의 현명함(?)은 교양과 지성을 학벌에 얹어 「데데」 삼는 또다른 사랑의 부재를 비자케 해준다. 계산지 않는 puppy love의 풋보람과 신선함은 대학생이 가질수있는 소중한 보배요, 특권이 아닐까?

▲습수 있었던 사랑은 해빠야 한다는 경박한 당위론이 거론된다. 「로로이」 전공을 일으키게 했던 「헬렌」이나 나폴레옹대군을 최근 (미명) 케한 「조세핀·바론사로」의 스케일 큰 사랑은 아닙지라도, 「순정」의 예감고 또속적인 감격의 사랑이나 뿜진이의 지난한 기다림의 사랑정도는 해봐야하는것이다. 다시 고백에 그침다하더라도, 사랑을 가슴에 품고 그 정체를 비껴스치어 갈지라는 숭한의 어떤 매력이 우리로하여금 그를 쉽게 단념시키지못갔 어려운 줄지도 모른다하여 「사랑은 아다다파라」의 유행이 짙은 우리의 신장 어디엔가 남아있을에 또다시 한점을 위한 시행착오의 고민을 감수해도 괜찮을 일이다.

▲정구게임에서는 양팀모두 부자점일때 love game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사랑론 (論)

불가에서 계인무아 (諸法無我) · 무법무상 (無念無相) 의 이치를 깨닫기에는 수많은 번뇌가 필요하듯, 일체유심조 (一切唯心造) 의 우리네 인생사에서 탐구욕 (貪欲) 한것은 아무것도 없는 백지상태라는 소피스틱한 이야기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사랑이 영 (零) 으로 귀결되어 모든것이 갖춰져있는 원점제로서의 논리가 양극상통 (兩極相通) 의 전시하에 성립된다고 보는 사랑을 해탈한한다고 반론기하하여 부귀보다는 「지연 지일이 고연이 고일이」 식의 익지일가.

<박>

「轉換時代의 論理」에 이어 〈創批〉가 자신있게 내놓는 또 하나의 巨事!
創批新書 21 姜萬吉 史論集
分斷時代의 歷史認識
밝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기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청년·학생·지식인들에게 우리의 역사를 보는 눈을 줄 이 저서는 오늘의 分斷狀況을 설파하는 한 개의 지표이다! — 리영희 교수 宋建鎬 文芸
新刊 310면 값 1,900원
創作과批評社 ☎ 8774 ☎ 7563

時代의 어둠을 밝히는 民族文學의 횃불!
創作과批評
1978년 가을호 통권 49호 값 200원
座談: 내가 생각하는 民族文學
高銀/柳宗鎬/具仲書/李富榮/白樂晴
評論·論文
小說에 있어서의 社會와 個人·李泰榮
……金炳翼
북독자시문학의 現狀的 空間 ……金興圭
國文學과 藝術論 ……林英澤
古典文의 敎育問題 (下) ……李東歡
(史實改革論)의 문제점 (240·) 白樂晴
詩
金春東/李盛夫/馬延合
金明仁/李東洵
小說
문학과 지금 ……白南星
오늘도 조용히 (180·) ……宋喜元
(200·) ……宋基榮
學師風 (장편연재 제3회) ……金容謙
書評
周 暎/千二斗/氏生根
廣英澤/安炳茂/朴淳敎
創作과批評社 (120)서울 서대문구 냉천동4/대표51 8274 ☎ (73) 8774 (70) 7563

◎복학시기 조절이 가능 종로1가 ☎17-25-44 ●인문·사회·법정·상경·공학·의학·약학·간호학·농학·수산학·사범·체육·음악·미술·가사·보건·간호·경영·경제·무역·공업·전자·전기·기계·토목·건축·섬유·화학·응용화학·응용미술·의예·의공·의상

민간외교의 조역(助役) 좌담

부산국제기능올림픽통역으로 다녀와서…

<참석자>
장현식(E·3)
맹주억(C·3)
김우중(S·4)
강인순(FE·4)
사회·정리 정문현 기자

국제무대서 제3외국어의 필요성 통감

"한국대학생의 "강한 "이미지심어줘

사회:우선 여러분의 그동안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활동내용부터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본대학생으로 구성된 우리일행 40명(남29명, 여11명)은 영, 독, 불, 서, 중어등 5개국어의 통역을 맡아 각국 임원진및 공식대표들이 입국하기 시작한 8월28일부터 9월15일의 출국까지 바쁜 일정을 보내며 분주히 뛰었습니다.

경기장, 과학실, 호텔, 선수촌, 접빈본부요원등 여러 파트로 나뉘어져 활동을 했죠. 그리고 공식적인 풍여활동외에 삼십시합, 쇼핑, 관광등의 안내까지 맡아 그야말로 눈코 뜰새없는 일과였습니다.

사회:그동안 학생의 신분으로서 이 기능올림픽의 련장을 직접 보시고 느끼신 점이 많을 줄로 아는데—.

—우선 이 기능올림픽이라는 것이 아랍권이나 아시아권에서는 선망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선진국들에서는 자기들의 기계기술의 영향을 받아선지 그저 참가에 의의를 갖는다는 식으로 이 대회를 약간 경시하는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이유에선지 선진권나라 선수단과 그밖의 선수들과 모한 대립같은 것도 느껴지더군요.

—또 이번에 우리 한국선수들의 열의에서 모두 감탄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의욕은 정말 놀라왔습니다. 각국 선수단들에 대한 정보를 알려고 우리들을 통해서 그들과 접촉하려고 노력도 하고 또 우리 선수들은 어려가지 과제에 대한 연습도 한전히 해왔지군요.

—이번 한국선수가 밤 2시에 실습장에 가서 연습을하는 것을 본을 변 잠깨 놀랐습니다. 나중에는 한국선수단의 임원진들이 선수들의전장을 직접 지정해줄 정도니까요.

—특히 양복, 미용등 몇분야의 기능공들은 만 기계종목과 달라 대체로 학력도 낮고 대육 빈곤한 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은 정말 눈물겨웠습니다.

—그러나 우리기능공들이타국에 비해 대우를 못받는것을 앞게되었을 변 아주 서글퍼지더군요.

—한국 선수들이 그렇게 열심히이고 또 순진, 타공해서 그런지 각국선수들에게 한국선수들의 이미지는 아주 잘 박혀있었습니다. 내가 풍여를 맡은 스페인사람들의 경우한국인들의 따뜻함을아주 깊이 느끼고 있더군요.

—그것에 관해 덧붙일얘기가 하나 있는데 내가 아는 미국인 Hill씨는 재작년 마드리드대회및 작년 쥬쿄트대회 그리고 이번 부산대회까지 연속심사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매번회의한국선수들의 재주나김밥, 마뜨랍에 감동해서한국선수들에게 이제는 오금을 못필 정도로 칭찬합니다. 그래서 한국선수들은 그를 부부를 「코리안파파」「코리안마마」라고 하며 따르며굳고 "아주 조웃했읍니다.

사회:그동안 여러분들이각국선수단을 도와주면서 많은 에피소우드들을 간직하고 있을을 압니다.

—저는 주경이노릇을 단단히 한 책이있읍니다. 스페인선수단중 미술도장부문의 한 선수가 선수단을 배운 어느관광버스 안내양에게 홀딱 반해있답니다. 그러나 사랑을구하려는데 밑이 통합수가 있어야죠. 결국 그들끼에 항상 내가붙어서 통역을봐야했습니다. 데이트를 하려다도 내가 곡절에 있어야하니 짤밥죽기 때문요. 그 선수가 떠나며 그 안내양을 스페인으로 떠려갔다는 얘기까지나왔죠. 결국 계속련지하기로 낙찰이뭣지만 그런지도 또 밑이 안통해 나를 통해서 하기도했어요. (일동웃음)

—여러 나라 사람들을 접하다보니 국경을 초월한 (?) 연정도 많이 목격했어요. 우리일행중 모군도 스페인 본부에서 나은 모여성 통역관을자주 접하다 한가닥의 연정을 느끼고 방황해 한적도 있었죠. (웃음)

—이번 그들과 어울리다 한 달도 많이 가르쳐주셨죠. 외국선수들의 한글을 배우고자하는 열의는 대단했어요. 특히 중동인출한 한국인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이랍선수들의 열정은 부도리였습니다.

각국선수들이 한글을 배우려고 개인지도를 부탁하곤 했어요. 또 미희기간중 선수숙소에선 우리가 가르쳐준 「응메하」「아리랑」「또요일밤에」들의 노래가 밤마다 울려나오곤 했죠.

—저는 일본선수들에게 한글을 시간을내어 가르쳐주었더니 이들이 밤에 제희 기숙사로 쉬슴기 렴병을 갖다주더군요 (일동웃음).

어쨌든 이들과는 그동안정말 정들었어요. 9월15일 김포공항서 그들이 떠나갈 변는에서 눈물까지 나오더군요 나쁜이 아닐거예요. 그 선수들은 물론이고요.

사회:필으로 학생의 신분으로서 이런 커다란 국제대회의 통역으로 참가하여 받은점이나 배운점이 많을 줄로 아는데 말씀해 주십시요.

—저는 이번 국제대회에서 각국선수들을 상대해보고 열어는 이미 국제이로서 기능을 상실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어하나가지고는 버티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았죠. 특히 본부에서 파견한 동시통역상들이 6개국어를 동시에 구사하는데 놀랐습니다. 역시 국제무대에 서려면 최소한 3개국어이상은 구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또 그들의 가이드 역할을 하면서 우리 지식의 권면성에 창피했읍니다. 역시 많은 것을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민간외교에도 우리가 한몫단단히 했다고 봅니다. 그들과는 정말 가깝게 지냈잖나 다. 대회련계자들도 나중에 우리에게 칭찬한 말인데, 그들은 한국에 대한 첫초 이미지를 많이 새긴하고 갔읍니다. 특히 그들은 한국대학생의 강한 이미지를 많이 련발받은 느낌이에요.

사회:여하튼 수고들 하셨읍니다. 강의실에서 배울 수 없었던 많은 것을 배우신것 같은데, 이제 또 24일부터 열리는 세계사격대회엔 더 큰 규모인 300여명의 본대학생이 안내요원으로 선발되어 가게 되었읍니다. 더욱 많은 것을 배워오고 모교 (校)에 외국어를 떨치게 되길 바라겠읍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전된 학생지도 연구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그 사회속의 집단에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소외자 (outsider) 가 나타나기 마련이다. 하물며 기계문명의 커다란 파동속을 헤매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대학생이라고 예외가 있으랴마는이러한 소외자들이 갖는 깊은 빈민과 고독을 함께해주는 따뜻한 온실과도 같은 곳이있어 학생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해준다.

금번 학생들의 캠퍼스생활을 보다 합리적으로 돕기 위하여 새로 마련된학생회관 (구:도서관 건물) 에서 학생처 바로앞에 위치한 학생상담실이 바로그곳.

지난 1968년경 학생상담의 큰 임무를 띠고 학생처 산하의 부속기구로 설치되어 그동안 본관 3층에 위치했던 것이 이번에 확장되어 이전 지시에 따라, 정보제공의 기능을 더욱 강화한 취업지도자료실과 학생상담실을포함한 이 학생지도 연구실이 이곳으로 새로 이전된 것이다.

정식 명칭이 「학생지도연구실」인 이 기구가 그간 10여년이라는 많은 연륜을 쌓아오는 가운데 비록 명식상 학생처의 부속기구이기는 하나 취급 업무의폭 수성으로 미루어 이 연구실의 기능은 독립성이 강하다고 연구실장 서병완부교수 (교목담당) 는말한다.

주로 취업이나 학업문제 또 대인관계나 학교생활에 있어 심한 부적응을 나타내는 학생들을 상대로 언제나 성의를 다하여 상담에 응해주는 서교수는 상담자 (counselier) 란 피상담자의 겪한 장점과 스트레스를 이해하고 수용하며 마찰내 공감할 수 있는능력이 있어야 하는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한다.

대구나 이런하기전 일주 2시간을 상담시간에 할여했으나 이전과 더불어 주 3시간 (화요일 1교시와 목요일 3, 4교시) 으로 한시간을 더 늘렸는데도 문의자가 쇄도하여 앞으로연구실의 방전에 따라 2~3명 정도의 전문 카운셀러가 더 필요하게 필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아무리 카운셀러의 인원이 는다 하여도 정해진 시간에만 상담에 응하는 현재의 관은 시간제상담은 확실히 제고과 여 학생처 바로앞에 위치한 학생상담실이 바로그곳.

지난 1968년경 학생상담의 큰 임무를 띠고 학생처 산하의 부속기구로 설치되어 그동안 본관 3층에 위치했던 것이 이번에 확장되어 이전 지시에 따라, 정보제공의 기능을 더욱 강화한 취업지도자료실과 학생상담실을포함한 이 학생지도 연구실이 이곳으로 새로 이전된 것이다.

정식 명칭이 「학생지도연구실」인 이 기구가 그간 10여년이라는 많은 연륜을 쌓아오는 가운데 비록 명식상 학생처의 부속기구이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퍼지 않을 수 없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언제나 개방된 상담실이 아쉬운 것이다.

아울러, 매년 신입생들에게만 실시하는 지능검사와 여 적성검사와 인성검사는 사실상 실시되지 못하고있다. 이에 서교수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할수 있을 경우 부족이 폭수대상자만이라도 그룹별로 묶어 적성·인성검사를 실시할계획이라고 밝힌다.

상담실 옆에 위치한 취인 자료실에는 현재 50여점의 각 기업체에 대한정보와 자료가 비치돼 있어 하루 평균 20여명이 자유로이 이 방을 찾고있다.

그러나 개방무에는 간혹 자료의 분실사건이 발생하여 이 자료실에만은 고정적원 1명 정도가 꼭 필요하다는 등의 운영상 애로사항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취급업무, 연구실 성격으로 탈바꿈

그룹별적성검사도실시 학생들에 완전개방해

며구나 이런하기전 일주 2시간을 상담시간에 할여했으나 이전과 더불어 주 3시간 (화요일 1교시와 목요일 3, 4교시) 으로 한시간을 더 늘렸는데도 문의자가 쇄도하여 앞으로연구실의 방전에 따라 2~3명 정도의 전문 카운셀러가 더 필요하게 필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아무리 카운셀러의 인원이 는다 하여도 정해진 시간에만 상담에 응하는 현재의 관은 시간제상담은 확실히 제고과 여 학생처 바로앞에 위치한 학생상담실이 바로그곳.

지난 1968년경 학생상담의 큰 임무를 띠고 학생처 산하의 부속기구로 설치되어 그동안 본관 3층에 위치했던 것이 이번에 확장되어 이전 지시에 따라, 정보제공의 기능을 더욱 강화한 취업지도자료실과 학생상담실을포함한 이 학생지도 연구실이 이곳으로 새로 이전된 것이다.

정식 명칭이 「학생지도연구실」인 이 기구가 그간 10여년이라는 많은 연륜을 쌓아오는 가운데 비록 명식상 학생처의 부속기구이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퍼지 않을 수 없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언제나 개방된 상담실이 아쉬운 것이다.

아울러, 매년 신입생들에게만 실시하는 지능검사와 여 적성검사와 인성검사는 사실상 실시되지 못하고있다. 이에 서교수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할수 있을 경우 부족이 폭수대상자만이라도 그룹별로 묶어 적성·인성검사를 실시할계획이라고 밝힌다.

상담실 옆에 위치한 취인 자료실에는 현재 50여점의 각 기업체에 대한정보와 자료가 비치돼 있어 하루 평균 20여명이 자유로이 이 방을 찾고있다.

그러나 개방무에는 간혹 자료의 분실사건이 발생하여 이 자료실에만은 고정적원 1명 정도가 꼭 필요하다는 등의 운영상 애로사항을 지적하기도 하였

사설학원으로 몰리는 외국어열풍

시내 사설 외국어학원 실태

학원위주 외국어교육에 검토여지

서울의 한복판 종로 2가 비거리에 즐비한 각종 외국어 전문 사설학원의 간판들, 외국어를 배워보겠다는 집념으로 학원문을 들어서는 사람들은 입구의 벽에 붙은 화려한 문구 (文句) 들을 대하고, 그것이 비록 사술을 동반한 문구 자체로 끝날지라도, 자신들이 선택하려는 외국어에 대한 매이론 정복감 (?) 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스크린 영어회화 3개월 완성!」「AFKN 80% hearing가능!」「특수비법, 특수시설로 교육!」등 광고에 약한 현대인들의 호기심을 끌고도 남을법하다.

서울시내에 산재한 사설 외국어학원들 가운데는 영어회화와 일본어회화를 가르치는 곳이 압도적으로 많다. 게중에는 타일외국어의 회화만을 전문으로 가르치는 곳이 있는가 하면 「프외국어학원」이나 「K외국어학원」처럼 3~5개의 외국어를 대학생중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직종 외국어의 회화 과정이 대학생들이 가장 즐겨 선택하는 과목이지만 이외에 「타임」이나 「뉴우스위크」등 시사잡지의 장독, 「TOEFL」이나 영학문들의 과목도 희지 않게 수강한다.

회화를 가르치는 「class」의 수강생들은 전태반상이다. 대학생 (특히 이들중에는 복학생이나 이공계 련공자, 고학년실수록 빈도가 높다), 회사원과 기술자 (주로 세일즈맨이나 해외취업으로 출국할 사람들) 중년층 (이민을 위해) 등과 아울러 외국어회화는 현대인의 교양이나 가 벼움다는 층등 해아릴 수 없이 다양하다.

특히 본기자가 방방한 모(某) 일본어회화 교습소의 경우, 2, 3개월 이내의 단기간 속성 교육을 시간을내어 가르쳐주었더니 이들이 밤에 제희 기숙사로 쉬슴기 렴병을 갖다주더군요 (일동웃음).

어쨌든 이들과는 그동안정말 정들었어요. 9월15일 김포공항서 그들이 떠나갈 변는에서 눈물까지 나오더군요 나쁜이 아닐거예요. 그 선수들은 물론이고요.

사회:필으로 학생의 신분으로서 이런 커다란 국제대회의 통역으로 참가하여 받은점이나 배운점이 많을 줄로 아는데 말씀해 주십시요.

—저는 이번 국제대회에서 각국선수들을 상대해보고 열어는 이미 국제이로서 기능을 상실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어하나가지고는 버티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았죠. 특히 본부에서 파견한 동시통역상들이 6개국어를 동시에 구사하는데 놀랐습니다. 역시 국제무대에 서려면 최소한 3개국어이상은 구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또 그들의 가이드 역할을 하면서 우리 지식의 권면성에 창피했읍니다. 역시 많은 것을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민간외교에도 우리가 한몫단단히 했다고 봅니다. 그들과는 정말 가깝게 지냈잖나 다. 대회련계자들도 나중에 우리에게 칭찬한 말인데, 그들은 한국에 대한 첫초 이미지를 많이 새긴하고 갔읍니다. 특히 그들은 한국대학생의 강한 이미지를 많이 련발받은 느낌이에요.

사회:여하튼 수고들 하셨읍니다. 강의실에서 배울 수 없었던 많은 것을 배우신것 같은데, 이제 또 24일부터 열리는 세계사격대회엔 더 큰 규모인 300여명의 본대학생이 안내요원으로 선발되어 가게 되었읍니다. 더욱 많은 것을 배워오고 모교 (校)에 외국어를 떨치게 되길 바라겠읍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정규교육기관 이외의 곳에서의 외국어 교육은 어떻게 이뤄지고있나? 길가지의 광고면을 무수한 외국어학원들은 결국은 「손님」이 있으니까 영업을 한다. 그 학원에 몰리는 그 「손님」들은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어 습득열의단면을 엿수 있다. 시내사설의 국어학원들의실태와 문제점들을 진단해 본다.

<편집자주>

학원수, 수강생은 문교부인가보다 웃돌아

외국인 강사의 수준이 가장 큰 문제

미군사병도 강사…. 외국어습득의 기형성 우려

서울시 교육위원회 사회교육과 자료제공) 에 의하면 서울시교육위원회의 정식인가를 받은 학원은 총 20개에, 인가 정원은 9천40명이다. 그러나 본보가 직접 조사한 바로는 정식인가를 받은 학원 이외에 다수의 무허가외국어교습소가 산재해서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수강생도 무허가 교습소의 수강인원과 함께 잡힌 학원의 공공연한 것으로 나타나 위의 통계를 웰씬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사설 외국어학원을 이용하는 수강생들의총도 다양하다. 전체 10대의 젊은 여성층 수강생이 많음 것을 보았다. 고등학교 번이회화를 배우거나 팝 동기가 무엇이냐고 물었을때, 물론 에리는 일본지만 번하지 않겠느냐는 교습소 관계자의 설명에 납득한 웃맛과함께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들었다.

본기자가 방방한 것은 주로 회화를 전문으로 가르치는 곳이었는데 주김방법도 다양하였다. 종로에 위치한 E학원의 경우, 한 학급에 10여명을 앉혀놓고 미국인으로 보이는 강사가 제니 인숙씨 순서로 회화의 초보과정을 가르치고 있었다. 학원원장의 말에 따르면 교재는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정원은 보통 9명을 원칙으로 하나 약간씩 초과되는 것이 상례라고 한다. 「Audio system」의 효과를 노린 흔적은 있었으나 「중세」정도에 그쳐버린 느낌이다.

어떤 곳은 수강생들의 실력정도에 따라 몇단계로 나누어 초보단계에서는 한국인 강사가 지도하고, 어느 정도 수준이 향상됨다음 외국인 강사의 지도아래 대화나 반복훈련으로 회화를 익혀가는 과정도있었다. 회화만 가르치는 교습소는 외로 무허가가 많았다. 따라서 제반 시설이나 강사 확보등 여러면에서 영세성을 벗어나기 힘든 상황이었다. 그런데 수강하는 학생들의 반응은 의외로 좋았다. 서정 유명학원의 복학생 A의 경우 「이곳의 교육은 명명하다. 이외에도 소위 「스크린영어」 강좌가 개설되어 있는 사설학원은 「I」학원외에 몇개 있다. 그러나 수강생들은 만나라의 언어를 배우는데 있어서, 엄마나 책임있는 학원측의 운영과 강사들의 지도하에서 포습받느냐 하는 것과, 렌지프의 흥미의 뿌리만 시청각시설의 운영이 얼마만큼 「흥내」의 테두리를 벗어나느냐하는 것이 문제이다. 저지 입기응변식의(현재의 상태로선 평가지표는모도 모르지만) 기형적 교육이 안연하게 된다면 문제는 커진다.

특이를 전문으로 교습하는 D 문화학원, 불어를 전문으로 가르치는 A학원등은 기구나 운영면에서 어느정도 「틀」이 잡힌 것으로 엄려지 있다. 「외국어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 오늘날 사회생활의 필수인자처럼 되어 있는 만큼인데, 정규교육시설이나 그것을 거쳐나온 졸업자들의 수는 적은 편인데 보면, 외국어 교습소의 난무는 이해할수 있는 일이다. 탐지 학원경영에서 으뜸의 따로게 되는 은영자들의 「열의」의 폭(?) 과 교육의 효율성은 물론이다. 그들이 구사하는 언어가 속어인지, 표준말인지도 모르면서 일부사처럼 몇마디씩 흑하는 형태의 교습을 받는사람들이 과연 자기 앞으로 주죽은 종를의 기능하랴.

서울시교육원원장측도 위의규제방안에 대해 이일다일 모색이 있다고 하는 것과, 렌지프의 흥미의 뿌리만 시청각시설의 운영이 얼마만큼 「흥내」의 테두리를 벗어나느냐하는 것이 문제이다. 저지 입기응변식의(현재의 상태로선 평가지표는모도 모르지만) 기형적 교육이 안연하게 된다면 문제는 커진다.

특이를 전문으로 교습하는 D 문화학원, 불어를 전문으로 가르치는 A학원등은 기구나 운영면에서 어느정도 「틀」이 잡힌 것으로 엄려지 있다. 「외국어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 오늘날 사회생활의 필수인자처럼 되어 있는 만큼인데, 정규교육시설이나 그것을 거쳐나온 졸업자들의 수는 적은 편인데 보면, 외국어 교습소의 난무는 이해할수 있는 일이다. 탐지 학원경영에서 으뜸의 따로게 되는 은영자들의 「열의」의 폭(?) 과 교육의 효율성

밝고 풍요한 사회건설을 위한
우리의 마음은 같읍니다.

맑은 웃음이
영롱히 메아리지는 이웃.
아름다운 마음이
푸르게 펼쳐진 사회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사랑에 찬
밝고 풍요한 오늘, 그리고 내일.

그 날을 위한
우리의 노력과 정성은
나만이 아닌 모두를 위한 것이기에
더욱 빛나고
더욱 값진 것입니다.
조국번영의 외침을
세계에 심어가는 [illegible]

現代

삐의자

김치고개(?)

우리민족의 민화나 토속적인 민요를 보면 먹는 이야기가 그 주된 주제를 차지하는 것이 많다. 뿐만아니라 「맛」에 대한 향용사들도 가히 다른 민족은 도저히 표현해낼 수 없는 기발한 것들이다. 하다못해 인사까지도 「진지 드셨습니까」라고 하는 바에야…. 그만큼 우리민족은 가난에 연유하였든 아니든 먹는데에 더러 (多大) 한 관심을 보였었다고 할 수 있다. 옛 벌집기 때문에 그렇게 한 「속물적인 관상쇠는 농」인지도 모를 과거 의식 (意識) 의 단면이다.

지금은 어떠한가? 다년간에 걸쳐으로 「오늘날 보리고개」라는 말을 전설화시킨 것은 물론이거니와 쌀 수출까지 하게됨 것이 저간 (這間) 의 주세라고 할 때, 적어도 의식주 문제는 해결한 듯 했다. 그러나 근자에 들어 체소류의 가격상등은 이 짧은 담정을 부분적으로원점 퇴원시키는 느낌이 들어 입맛이 쓰지않을 수 없다. 시장에 나가보면 이를 명확히 느낄 수 있다. 쌈에추 한 포기가 2천원을 웃가하고 고추 2개가 백원이라는 것을 보면 주부들은 말들이 결코 과장된 조어가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다. 「금(金)치」라는 말이 새삼스럽게 느껴지지않는것도 아니다. 우리겐은 고추가루를 듬뿍넣어 김치를 해 먹는다」라는 세태력인 농담에 쓴웃음을 짓게되는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과거 주곡의 「보리고개」가 지금은 반찬의 「김치고개 (?)」로 변질되어 나타나는것은 물론 아니겠지만, 그렇게 지천 (至賤) 이던 소채류가 기근을 맞아서, 우리의 만인의 맛있기? 「자연은 인간의 사고 (思考) 를 지배한다」고 투쓰는 말하고 있다. 여기서 본 (本) 빈의자 자 (子) 가 우려하는 것은 체소류의 이처구니없는 가격앙등에 따른 다른물가의 동귀 (歸貴) 나 소비자군 (群) 의 부담만은 아니다. 말잡지도 없이 정책인안자는 이를 전파 같이 주먹구구식으로만 해결하지 않고 보다 주한·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세워주리라 믿는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혹시나 투쓰가 말한대로 이번 채소가근이나 물가 이변이 우리네 인심을 더욱 차박하게 만들어 「가는 손님 뒤꼭지가 예쁘다」는 속담이 현실로 나타나지나 않을까하는 것이다. 우리의 미풍양속에 뿌리가 서는 인퍼정도는 지극한 소양이 있기 때문이겠지만 그로보는 물계된 순응하는것이 지금의 세태 (世態) 라면, 모남이 없이 나서기질 수 있는 넘은 마음의 자세를 배울 시기다.

사욕 (私慾) 으로 물가앙등을 부채질하는행위는 마땅히 지양되어야 하고 상부층에서 관망으로 일도하여 전장적인 미덕을 제주 해야 할 시기인 것이다. 단지 이번 이변이 일시적인 현상이기를 바라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인내 미니스미치」의 아낌을 권장하고 싶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 고유의 전양의 미를 되살리자. 역지사지 (易地思之) 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왜 마시는가

작가·시인들의 테마 에세이 시리이즈 ②

술

이 제 하

◇글쓴이 소개 ▲1938년경남 밀양 출생. 작가 ▲홍익대 미대 졸업 ▲1959년현대문학에 시로 데뷔 ▲「60년대 사화집」등인쇄동▲창작집에 「초식」「새(鳥)」「기차·기선·바다·하늘」이 있음.

왜 마시는가고 묻는 것처럼 어리석은 질문이 또 있을까. 말술의 주탑(酒塔)을 파시하는 주호(酒豪)가가별 놈에 술을 잘 알고있다고 은근히 자부하고 있다면 그저형 우스꽝스럽기이도 없듯이 무조건 마셔대는사람에게 왜 그러느냐고 마지는 일도 넌센스쯤에 넌센스임에는 틀림이 없다. 술은 양(量)도 아니고 이유나 목적이나 수단으로 파악되어질 그런성질의 것도 아니기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이 즐겨 그것을 마신다. 그때문에 술에 대한 이미지는 대개 전혀 술을 못하는 사람이경화히 파악하고 있다. 술을 하지 않아도 감정의 기복이나 폐등이 순탄스러워지신을 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체 살찌없이 저렇게 나빙하여 뛰게서 정상수설 혀우뚜대는가 하고 반문한다. 반대로 화학성분의 입자이온연결 물로 배출해우며 어떻게 해서든 자신에게서 해방되려고 기를 쓰는 욕에서는 마시지 않아도 취해 제대로 몸을 가누고 있는 사람들이 마냥 중오스럽다. 따라서 마시는 욕에서는 언제나 이미지의 내용이 뒤어있고 그것을잡고 해독하는욕은 전혀 술을 모르는 사람인것이다.

제멋에 마시는 사람은 아무도 관여할 수 없듯이 그렇지않은 사람 또한 아무도 관여할 수가 없다. 이럴게 피면 남는 것은 어떻게 마시는가라는 문제뿐이다.

유감스럽게도 그것을 마심으로써 술이 찾지있는 이미지를 제대로 체험하고 있는 젊은이를 본것같지가않다. 대체로 마시는 곧들이 공하기 싹이없다. 외래적인 습관이나 공리적인 필요때문에 마시는 술은 이미 술이 아니니라 서지하고 게 전에와 마주앉아 홀짝이는 그것도 희망 감정의 고양(高揚)이라거나 응기나쁘 작의해방이라는 불순한 욕심이 주제가 된다. 기독교의 도덕의 지배 밑에서 「나타」이던 정신은 신의 죽음의 확인에 의해 사방의 「사자」가 된다. 「니이체」는 피안의 세계에서 대표되는 형이상학적 초월적 가치들이 허무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이 「니힐」을 「초힘」, 「권력에의 의지」「영원한 것의 영원회귀」라는 사상으로 초극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의 「니힐」에서도 완전한 해결을 맛볼수가 없다. 내가 잡을수 있는 것은 그 외 외에 불파하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생겨나는 허탈감은 나에게 치명이란 고통이을 가져다 준다.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입을 꽉 다물고는 이 가을을 이겨내려고 안간힘을 쓴다. 그럴때면 나는 「보들레르」처럼 친구들 한복판에서 영원히 고독해야할 운명의 느낌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이를 악물고 생각을 고집한다. 삶이가야 할 종점은 이유는 아직 죽지 않았다는 사실에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까뮈」의 말대로 죽음은 끝이긴 그만인 문이기 때문에 나는 한잔의 커피로 가장 중요한 결학문제를 포기해 버리는 지도 모른다. 그리고 더이상 나는 나 자신을 미워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나의 「니힐」을 사랑한다. 아니 거기에 열정적으로 희승해 나갈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다.

나의 이열정은 나의 「니힐」도 나에게 하이번스를 남기고 던 「안드로메다」를 부활꾼이 그렇게 사위어간다.

나는 나의 내부에서 뛰어나와 생명의 시를쓴다.

하나의 나뭇잎이 흔들리고 그리고

바람이 분다.

<프랑스어교육과·2>

나의 니힐

김 영 희

바람이 분다. 나뭇잎이 비오듯 떨어진다. 가을을 모르는 눈물이 가슴을 치밀어 두 눈에 고인다. 「보카이」의 시 속에서 처럼 오솔길을 한없이 걸어가다가 선술집에 들어가서 어린 포도주와 파란 포도를 먹고 목을 속으로 비틀거리며 가고 싶은 가을이었던 소위 염이상학적인 허무이란에 심취를 감을 수 없는「니힐」이 가슴 깊숙히 파 놓은 나의 무덤을 맞는다. 「니이체」가 가졌던 확한 데로 「니힐」은 존재가 갖는 일체의 목표가 의미를 상실함을 말하는 것도 모른다. 누군가 나를보고 허(虛)해 보인다고했다. 손안에 쥐고 있던 풍선을 놓친 아이처럼 한없이 놓기만 한 하늘을 보며 상실감에 잠겨 있는 것이 그렇게 보였는게 모른다. 「존·메이스필드」의만 「로드·메이스필드」의만 「방랑인의환상곡」을 읊으면서 또 다시 주저 앉아버리고 만다. 피아노 건반을 밟지로 때려 부수는 듯한 장엄한 음색의 교향곡 답답한 마음은 앉어지지만 피할 신화에 나오는 반바로스처럼 하고자 하는 욕망과 앞 수 있는 가능의 상식 때문에 항상 마음의 초조를 느낀다. 그리하여 나의 일생상한 아무 것도 이룬 수 없으리 라는 삶에 대한 공포가 나의 시지스인 허무를 노끼게 되고 그래서 인생이란 어떻게 보면 시간적인 무의미한 것이라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영원한 것이라고 나는 그러므로 그것을 나의 니힐을 극히 좁은 영역속에 고착시키도록 관념을 내립시도 모르리라는 공포가 신에 대한 상념까지, 앗아가 버린다. 그리하여 나는 「신의 죽음」이라는 현대의 「니힐니즘」을 주장한 「니이체」에 의해 위로받는다. 그의 「니힐」은 성실로 말미암은 도덕의 자기 파괴로인은 물로 배출해우며 어떻게 해서든 자신에게서 해방되려고 기를 쓰는 욕에서는 마시지 않아도 취해 제대로 몸을 가누고 있는 사람들이 마냥 증오스럽다. 따라서 마시는 욕에서는 언제나 이미지의 내용이 뒤어있고 그것을잡고 해독하는욕은 전혀 술을 모르는 사람인것이다.

제멋에 마시는 사람은 아무도 관여할 수 없듯이 그렇지않은 사람 또한 아무도 관여할 수가 없다. 이럴게 피면 남는 것은 어떻게 마시는가라는 문제뿐이다.

유감스럽게도 그것을 마심으로써 술이 찾지있는 이미지를 제대로 체험하고 있는 젊은이를 본것같지가않다. 대체로 마시는 곧들이 공하기 싹이없다. 외래적인 습관이나 공리적인 필요때문에 마시는 술은 이미 술이 아니니라 서지하고 게 전에와 마주앉아 홀짝이는 그것도 희망 감정의 고양(高揚)이라거나 응기나쁘 작의해방이라는 불순한 욕심이 주제가 된다. 기독교의 도덕의 지배 밑에서 「나타」이던 정신은 신의 죽음의 확인에 의해 사방의 「사자」가 된다. 「니이체」는 피안의 세계에서 대표되는 형이상학적 초월적 가치들이 허무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이 「니힐」을 「초힘」, 「권력에의 의지」「영원한 것의 영원회귀」라는 사상으로 초극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의 「니힐」에서도 완전한 해결을 맛볼수가 없다. 내가 잡을수 있는 것은 그 외 외에 불파하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생겨나는 허탈감은 나에게 치명이란 고통이을 가져다 준다.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입을 꽉 다물고는 이 가을을 이겨내려고 안간힘을 쓴다. 그럴때면 나는 「보들레르」처럼 친구들 한복판에서 영원히 고독해야할 운명의 느낌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이를 악물고 생각을 고집한다. 삶이가야 할 종점은 이유는 아직 죽지 않았다는 사실에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까뮈」의 말대로 죽음은 끝이긴 그만인 문이기 때문에 나는 한잔의 커피로 가장 중요한 결학문제를 포기해 버리는 지도 모른다. 그리고 더이상 나는 나 자신을 미워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나의 「니힐」을 사랑한다. 아니 거기에 열정적으로 희승해 나갈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다.

나의 이열정은 나의 「니힐」도 나에게 하이번스를 남기고 던 「안드로메다」를 부활꾼이 그렇게 사위어간다.

나는 나의 내부에서 뛰어나와 생명의 시를쓴다.

하나의 나뭇잎이 흔들리고 그리고

바람이 분다.

<프랑스어교육과·2>

사랑마루

산다는 것

홍 경 표

한때는 무엇이거나 선동적인 것에 한 마음이 쏠려 화려한 일상 생활과 찬란한 장래만을 바라보며 살았었다. 또 한때는 흘러간 시간을 아쉬워하며 지나갔일 떠나버린 사람의 안부에 마음 졸이며 안타까워 하기도 했다. 어쩌면 나는 늘 현재에 있지 못하고 미래 아니면 과거속에 방황하며 현재를있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왜 그랬을까? 사람은 모두 그런 것일까? 아니면 나만이 흘러옴식 간과 앞이할 시간의 사이에서 현재의 귀중함을 버려버리는 일이 고통스러워 벗어나고 싶었던 것일까? 나의 현실이 바뀌보고 싶지만은 슬픔 일로만 돌려싸인 것같은 방상 때문이었을까?

나는 끝말 나의 생명은 현재의 것일수 밖에 없다는 당연한 사실에 방점의 놓라는 어리석음을 피할이 한다. 그때마다 현재 살아있으므로 나는 존재하는 것이며, 나는하나이며, 나는 하고싶은 일이 많으며, 나는 죽고 싶지 않다는 마지막 음부밑에 부부힘다.

그 음부밑 쥐여는 나는 타입 죽음의 진리를 증명하기 위한 필종으로서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한없이 나를 억울하게 만든다.

그러나 이 가을. 나는음방에 밑굴면서 이름도 모를 풀포기에 응기종기 매달린 열매를 바 인에 밀어넣고, 목욕솜에서 아무도 방해 하지않고 피어나를곳 한송이를 찾아 내고는, 이를을 반나짐반으로도 나의존재는 형복한 것이 아닌가. 입안에 퍼지는 향긋한 냄새반으로도 나의 생명은 풍성의 살찐한 기지가있는게아닌가 싶어진다.

저토록 숨어서 피어나는 곳의 의미를 모르는데 도한 내 존재의 의미를 모른다는를 무슨 큰 잘못일수 있을까? 나는때어 낮으므로살아가는 것이며 나의 생명은 오직 현재 뿐이므로 한순간 한순간, 최선을 다한다. 나의 존재이유를 실현할수도량이할수도 없지만 그 순한 증명과 해설과 연구에 나스스로 무의미를 부여하며, 결의한 인어로 표현할수 없으며 생명은 결때만 생각 한다. 나는 말없이 피었다지는 한송이 꽃이고 싶다.

그처럼생명의 결대성을 깨달아 인어 조차도 잊어버리고 생명의순간을 곱지못 살아가고싶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지절이며 죽음이 내 언어를 뺏어가기전 기다리는 현실한 삶을 이어간다.

그러나 어제나, 나는 영원을 배웠고 나는 어제면 영원함수도 있으리라는 꿈상에 빠져 있었다···

<프랑스어과·강사>

주간지의 문제성

이 렇 게 본 다

주제보단 화제를 선택

현대사회를 흔히들 매스컴시대라고도 한다. 그만큼 매스미디어의 영향력이 현대사회를 이끌어가는 크나큰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중에서도 특히 신문의 역할이 거의 그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그런데 요즘 각 신문사마다 주제지라고 하여 주간지 발행에 급급하여 모신문사의 경우엔 주제이전도됨 느낌마저 들고 있는 실정이다.

긴장된 하루하루의 생활을 영위하는현대인들에게보편적이며논의적인백박한일간지 보다는 흥미·오락 위주의 기사로서 정신적인스트레스를 해소시킨다는 견지에서 볼 때, 일단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여겨지나, 정형하게 피는 주간지의 중남가 빈합함에 따라 이러한 현상이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로인해 일간지는 이러한 역을 가져다 준다. 그러나 이를 악물고 생각을 고집한다. 삶이가야 할 종점은 이유는 아직 죽지 않았다는 사실에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까뮈」의 말대로 죽음은 끝이긴 그만인 문이기 때문에 나는 한잔의 커피로 가장 중요한 결학문제를 포기해 버리는 지도 모른다. 그리고 더이상 나는 나 자신을 미워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나의 「니힐」을 사랑한다. 아니 거기에 열정적으로 희승해 나갈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다.

나의 이열정은 나의 「니힐」도 나에게 하이번스를 남기고 던 「안드로메다」를 부활꾼이 그렇게 사위어간다.

나는 나의 내부에서 뛰어나와 생명의 시를쓴다.

하나의 나뭇잎이 흔들리고 그리고

바람이 분다.

<프랑스어교육과·2>

질적 향상보다 「타임」, 「뉴스위크」는

신문보다는 흥미·오락 위주의 기사로서 정신적인스트레스를 해소시킨다는 견지에서 볼 때, 일단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여겨지나, 정형하게 피는 주간지의 중남가 빈합함에 따라 이러한 현상이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로인해 일간지는 이러한 역을 가져다 준다. 그러나 이를 악물고 생각을 고집한다. 삶이가야 할 종점은 이유는 아직 죽지 않았다는 사실에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까뮈」의 말대로 죽음은 끝이긴 그만인 문이기 때문에 나는 한잔의 커피로 가장 중요한 결학문제를 포기해 버리는 지도 모른다. 그리고 더이상 나는 나 자신을 미워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나의 「니힐」을 사랑한다. 아니 거기에 열정적으로 희승해 나갈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다.

나의 이열정은 나의 「니힐」도 나에게 하이번스를 남기고 던 「안드로메다」를 부활꾼이 그렇게 사위어간다.

나는 나의 내부에서 뛰어나와 생명의 시를쓴다.

하나의 나뭇잎이 흔들리고 그리고

바람이 분다.

<프랑스어교육과·2>

이익보다 폐해많은 실태

제 기능없는 소아마비적 잡지

판매에 급급 세계서 애독

신문보다는 흥미·오락 위주의 기사로서 정신적인스트레스를 해소시킨다는 견지에서 볼 때, 일단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여겨지나, 정형하게 피는 주간지의 중남가 빈합함에 따라 이러한 현상이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로인해 일간지는 이러한 역을 가져다 준다. 그러나 이를 악물고 생각을 고집한다. 삶이가야 할 종점은 이유는 아직 죽지 않았다는 사실에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까뮈」의 말대로 죽음은 끝이긴 그만인 문이기 때문에 나는 한잔의 커피로 가장 중요한 결학문제를 포기해 버리는 지도 모른다. 그리고 더이상 나는 나 자신을 미워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나의 「니힐」을 사랑한다. 아니 거기에 열정적으로 희승해 나갈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다.

나의 이열정은 나의 「니힐」도 나에게 하이번스를 남기고 던 「안드로메다」를 부활꾼이 그렇게 사위어간다.

나는 나의 내부에서 뛰어나와 생명의 시를쓴다.

하나의 나뭇잎이 흔들리고 그리고

바람이 분다.

<프랑스어교육과·2>

문화단신

▲출판문화협회가 개최하는 제22회전국도서전시회가 25일부터 10월1일까지 (매일 오전10시~오후8시) 세종문화회관 전시장에서 열린다.

금번 전시회엔 광복이후 25년간 출간된 창작집 3백여종을 비롯해서 각종 신간도서 2만여종이 전시된다.

▲극단「민중극장」에서는 제2회 대한민국연극제 참가작품인「카덴자」를 9월22일부터 27일까지 매일 오후4시와 7시30분에 연극회관 제실극장에서 공연한다.

신예극작가 이현화 작의 「카덴자」는 중세의 사극(史劇) 형식에 대한 새로운 시도로서 연극속에 관객을 참여시켜 놓고 역사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필으며 현대인의 시민의식을 일깨우고자 시도하고 있다고 한다.

알 림

본 외대학보에서는 항상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리고 있읍니다. 여러분의 정성이 담긴 원고를 외대신문사로(구 도서관 311호) 가져오십시오.

▲시=매수제한 없음

▲수필= 6~12매

▲콩트=12매 내외

▲단편소설=30매 내외

▲학생논단=20매 내외

◇원고 사정상 「세계를 하나로」는 쉽니다.

수필

김 영 희

나「셀리번밸리즘」으로 절뮤짓기에는 이 공허감은 너무나 큰 의미를 나의 일상의 영위에서 빼앗아 가버린다. 수레바퀴처럼 타성으로 회전하고 있는 나의 생활도 이럴 때는 그 궤도를 벗어나고 싶어진다.

나도 「피이로」의 욕에서 하고 싶어진다. 어때까지 나에게 그냥 주어지기만 했었던 생을 내가 의식적으로 오솔길을 한없이 걸어가다가 선술집에 들어가서 어린 포도주와 파란 포도를 먹고 목을 속으로 비틀거리며 가고 싶은 가을이었던 소위 염이상학적인 허무이란에 심취를 감을 수 없는「니힐」이 가슴 깊숙히 파 놓은 나의 무덤을 맞는다. 「니이체」가 가졌던 확한 데로 「니힐」은 존재가 갖는 일체의 목표가 의미를 상실함을 말하는 것도 모른다. 누군가 나를보고 허(虛)해 보인다고했다. 손안에 쥐고 있던 풍선을 놓친 아이처럼 한없이 놓기만 한 하늘을 보며 상실감에 잠겨 있는 것이 그렇게 보였는게 모른다. 「존·메이스필드」의만 「로드·메이스필드」의만 「방랑인의환상곡」을 읊으면서 또 다시 주저 앉아버리고 만다. 피아노 건반을 밟지로 때려 부수는 듯한 장엄한 음색의 교향곡 답답한 마음은 앉어지지만 피할 신화에 나오는 반바로스처럼 하고자 하는 욕망과 앞 수 있는 가능의 상식 때문에 항상 마음의 초조를 느낀다. 그리하여 나의 일생상한 아무 것도 이룬 수 없으리 라는 삶에 대한 공포가 나의 시지스인 허무를 노끼게 되고 그래서 인생이란 어떻게 보면 시간적인 무의미한 것이라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영원한 것이라고 나는 그러므로 그것을 나의 니힐을 극히 좁은 영역속에 고착시키도록 관념을 내립시도 모르리라는 공포가 신에 대한 상념까지, 앗아가 버린다. 그리하여 나는 「신의 죽음」이라는 현대의 「니힐니즘」을 주장한 「니이체」에 의해 위로받는다. 그의 「니힐」은 성실로 말미암은 도덕의 자기 파괴로인은 물로 배출해우며 어떻게 해서든 자신에게서 해방되려고 기를 쓰는 욕에서는 마시지 않아도 취해 제대로 몸을 가누고 있는 사람들이 마냥 증오스럽다. 따라서 마시는 욕에서는 언제나 이미지의 내용이 뒤어있고 그것을잡고 해독하는욕은 전혀 술을 모르는 사람인것이다.

제멋에 마시는 사람은 아무도 관여할 수 없듯이 그렇지않은 사람 또한 아무도 관여할 수가 없다. 이럴게 피면 남는 것은 어떻게 마시는가라는 문제뿐이다.

유감스럽게도 그것을 마심으로써 술이 찾지있는 이미지를 제대로 체험하고 있는 젊은이를 본것같지가않다. 대체로 마시는 곧들이 공하기 싹이없다. 외래적인 습관이나 공리적인 필요때문에 마시는 술은 이미 술이 아니니라 서지하고 게 전에와 마주앉아 홀짝이는 그것도 희망 감정의 고양(高揚)이라거나 응기나쁘 작의해방이라는 불순한 욕심이 주제가 된다. 기독교의 도덕의 지배 밑에서 「나타」이던 정신은 신의 죽음의 확인에 의해 사방의 「사자」가 된다. 「니이체」는 피안의 세계에서 대표되는 형이상학적 초월적 가치들이 허무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이 「니힐」을 「초힘」, 「권력에의 의지」「영원한 것의 영원회귀」라는 사상으로 초극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의 「니힐」에서도 완전한 해결을 맛볼수가 없다. 내가 잡을수 있는 것은 그 외 외에 불파하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생겨나는 허탈감은 나에게 치명이란 고통이을 가져다 준다.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입을 꽉 다물고는 이 가을을 이겨내려고 안간힘을 쓴다. 그럴때면 나는 「보들레르」처럼 친구들 한복판에서 영원히 고독해야할 운명의 느낌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이를 악물고 생각을 고집한다. 삶이가야 할 종점은 이유는 아직 죽지 않았다는 사실에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까뮈」의 말대로 죽음은 끝이긴 그만인 문이기 때문에 나는 한잔의 커피로 가장 중요한 결학문제를 포기해 버리는 지도 모른다. 그리고 더이상 나는 나 자신을 미워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나의 「니힐」을 사랑한다. 아니 거기에 열정적으로 희승해 나갈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다.

나의 이열정은 나의 「니힐」도 나에게 하이번스를 남기고 던 「안드로메다」를 부활꾼이 그렇게 사위어간다.

나는 나의 내부에서 뛰어나와 생명의 시를쓴다.

하나의 나뭇잎이 흔들리고 그리고

바람이 분다.

<프랑스어교육과·2>

나의 니힐

김 영 희

바람이 분다. 나뭇잎이 비오듯 떨어진다. 가을을 모르는 눈물이 가슴을 치밀어 두 눈에 고인다. 「보카이」의 시 속에서 처럼 오솔길을 한없이 걸어가다가 선술집에 들어가서 어린 포도주와 파란 포도를 먹고 목을 속으로 비틀거리며 가고 싶은 가을이었던 소위 염이상학적인 허무이란에 심취를 감을 수 없는「니힐」이 가슴 깊숙히 파 놓은 나의 무덤을 맞는다. 「니이체」가 가졌던 확한 데로 「니힐」은 존재가 갖는 일체의 목표가 의미를 상실함을 말하는 것도 모른다. 누군가 나를보고 허(虛)해 보인다고했다. 손안에 쥐고 있던 풍선을 놓친 아이처럼 한없이 놓기만 한 하늘을 보며 상실감에 잠겨 있는 것이 그렇게 보였는게 모른다. 「존·메이스필드」의만 「로드·메이스필드」의만 「방랑인의환상곡」을 읊으면서 또 다시 주저 앉아버리고 만다. 피아노 건반을 밟지로 때려 부수는 듯한 장엄한 음색의 교향곡 답답한 마음은 앉어지지만 피할 신화에 나오는 반바로스처럼 하고자 하는 욕망과 앞 수 있는 가능의 상식 때문에 항상 마음의 초조를 느낀다. 그리하여 나의 일생상한 아무 것도 이룬 수 없으리 라는 삶에 대한 공포가 나의 시지스인 허무를 노끼게 되고 그래서 인생이란 어떻게 보면 시간적인 무의미한 것이라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영원한 것이라고 나는 그러므로 그것을 나의 니힐을 극히 좁은 영역속에 고착시키도록 관념을 내립시도 모르리라는 공포가 신에 대한 상념까지, 앗아가 버린다. 그리하여 나는 「신의 죽음」이라는 현대의 「니힐니즘」을 주장한 「니이체」에 의해 위로받는다. 그의 「니힐」은 성실로 말미암은 도덕의 자기 파괴로인은 물로 배출해우며 어떻게 해서든 자신에게서 해방되려고 기를 쓰는 욕에서는 마시지 않아도 취해 제대로 몸을 가누고 있는 사람들이 마냥 증오스럽다. 따라서 마시는 욕에서는 언제나 이미지의 내용이 뒤어있고 그것을잡고 해독하는욕은 전혀 술을 모르는 사람인것이다.

제멋에 마시는 사람은 아무도 관여할 수 없듯이 그렇지않은 사람 또한 아무도 관여할 수가 없다. 이럴게 피면 남는 것은 어떻게 마시는가라는 문제뿐이다.

유감스럽게도 그것을 마심으로써 술이 찾지있는 이미지를 제대로 체험하고 있는 젊은이를 본것같지가않다. 대체로 마시는 곧들이 공하기 싹이없다. 외래적인 습관이나 공리적인 필요때문에 마시는 술은 이미 술이 아니니라 서지하고 게 전에와 마주앉아 홀짝이는 그것도 희망 감정의 고양(高揚)이라거나 응기나쁘 작의해방이라는 불순한 욕심이 주제가 된다. 기독교의 도덕의 지배 밑에서 「나타」이던 정신은 신의 죽음의 확인에 의해 사방의 「사자」가 된다. 「니이체」는 피안의 세계에서 대표되는 형이상학적 초월적 가치들이 허무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이 「니힐」을 「초힘」, 「권력에의 의지」「영원한 것의 영원회귀」라는 사상으로 초극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의 「니힐」에서도 완전한 해결을 맛볼수가 없다. 내가 잡을수 있는 것은 그 외 외에 불파하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생겨나는 허탈감은 나에게 치명이란 고통이을 가져다 준다.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입을 꽉 다물고는 이 가을을 이겨내려고 안간힘을 쓴다. 그럴때면 나는 「보들레르」처럼 친구들 한복판에서 영원히 고독해야할 운명의 느낌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이를 악물고 생각을 고집한다. 삶이가야 할 종점은 이유는 아직 죽지 않았다는 사실에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까뮈」의 말대로 죽음은 끝이긴 그만인 문이기 때문에 나는 한잔의 커피로 가장 중요한 결학문제를 포기해 버리는 지도 모른다. 그리고 더이상 나는 나 자신을 미워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나의 「니힐」을 사랑한다. 아니 거기에 열정적으로 희승해 나갈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다.

나의 이열정은 나의 「니힐」도 나에게 하이번스를 남기고 던 「안드로메다」를 부활꾼이 그렇게 사위어간다.

나는 나의 내부에서 뛰어나와 생명의 시를쓴다.

하나의 나뭇잎이 흔들리고 그리고

바람이 분다.

<프랑스어교육과·2>

신간서평

『현대학문의 조류와 그전망』

연세춘추사편. 연세대학교 출판부간 482 P, 값 1800원

현대지성의 가장 큰 문제는 오늘날 지성세계 전체에 대한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학문의 역사가 길면 길수록 좀 더 깊이 좀 더 상세히 연구해 보려는 욕심이 생기고 연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영역은 세분화되고 더 전문화되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의 학자들은 자기의 조그마하고 깊은 우물안에 앉은 개구리가 되어가고 있고, 「전문가 바보」(Pachidiot)가 되고 있다.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앞고 싶어도, 너무 어려워서 포기해 버리기가 일쑤다.

그런데 타협하게도 이런 에 연세대학의 「연세춘추사」에서 좋은 책을 내어 이 문제에 다소 도움을 주고 있다. 책명 창조적이고 사려깊은 장기계획을 만들어 등 신문사에서는 1975년 3월부터 수학에서 음악, 연극에 이르기까지 현대학문 및 정신활동의 각방면의 전문교수들로 하여금 자기들 분야의 근황과 가장 정점이 되는 문제들을 평이하게 소개토록 하여 신문에 게재해왔다. 그것들을 다시 추리고 재정리하여 한 권의 책으로 이번에 내어놓은 것이다.

일반 학생독자들을 상대로하여 쓰여진 글들이기 때문에 비전문가라도 읽어 이해할 수 있다는데 이 책의 장점이있으며, 집필자들도 연세대에 국한된게 아니라, 서울대, 서강대, 외대등 여러 대학 교수들이 망라되었다.

자기 분야를 좀 더 중심히 알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분야에 대한 어느 정도의 상식이 필요하고, 현대의 고양인이라면 현대정신이 가는 방향을 어느정도 알 필요가 있다면 이 책은 그 필요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손 봉 호

<네덜란드어과 부교수>